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

맹 주 만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윤리, 동물윤리

주요어 윤리적 채식주의, 공리주의,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 감응력, 고통

요약문

육식을 거부하며 윤리적 채식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철학적 옹호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리주의 이론이나 의무론적인 도덕적 권리론을 근거로 삼는다. 특히 싱어는 공리주의를 무기로 삼고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물윤리를 개척한 선구적 인물이며, 또한 육식의 비윤리성을 고발하면서 이전의 식습관을 포기하고 몸소 채식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실천적 이론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싱어의 논변은 기본적으로 선호공리주의와 동물의 감응력에 근거해서 옹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물권리론, 환경주의, 여성주의 등의 진영에서 적지 않은 도전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의 대응은 주로 싱어의 주장이 함축하거나 초래하게 되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서 이루어졌다. 이 글은 이와 달리 선호공리주의와 감응력에 기초한 싱어의 육식의 비윤리성 및 윤리적 채식주의 옹호 논증의 이론적 토대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시도한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육식과 채식의 도덕적 차이

리프킨(Jeremy Rifkin)이 『육식의 종말』(*Beyond Beef*, 1993)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서구 문명의 형성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연회가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식단에 오르는 육류의 상징인 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는 한 때 그 육체에 깃들여 있는 신성함을 칭송하며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부를 낳는 경제적 생산성이라는 세속적 개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의 식욕을 만족시켜주는 육류로서 서구 음식문화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¹⁾ 소를 비롯한 동물의 사육과 육식에 기반을 둔 문화적 생활양식과 이로부터 초래되는 전지구적 환경 위기에서 지구를 구해내기 위해서 리프킨은 육식 중심의 음식문화의 종언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육식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거부는 아니다. 반면 20세기 후반, 대략 197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도덕적 실천으로서 등장한 ‘동물해방운동’(Animal Liberation Movement)은 도덕적인 이유에서 모든 육식문화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 많은 동물해방론자들 및 윤리적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동물음식, 즉 육식은 동물실험과 함께 동물착취의 최대의 원흉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힌두교나 불교와 같이 채식이 음식문화를 주도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채식만으로 차려진 식단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렇다고 채식 옹호의 목소리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불거진 것은 아니다. 비록 음식문화의 주변부에 머물긴 했어도, 채식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음식문화의 역사만큼이나 장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 육식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논의들은 대체로 동물은 영혼이 없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성적 능력이 없다, 도덕

1)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신현승 옮김, 시공사, 2002, 1부 소와 서양 문명, 특히 24-33쪽.

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의 생존법칙이다 등의 이유들에 의지해 왔다.²⁾ 반면 인간이 모든 동물과 동족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던 고대의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70-490)로부터 시작해서 육식성(carnivorism)은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며, 식용으로 이용되는 동물들에 가해지는 잔혹성에 깊은 동정심을 가졌던 18세기의 맨더빌(Bernard Mandeville, 1670-1733), 하틀리(David Hartley, 1705-1757),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 1728-1774)는 물론이며, 19세기의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 킹스포드(Anna Kingsford, 1846-1888) 등을 거쳐 솔트(Henry S. Salt, 1851-1939), 간디(Mohandas Gandhi, 1869-1848),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5), 그리고 오늘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실천적 이론가 싱어(Peter Singer, 1946-)를 비롯한 동물해방론자들과 동물권리론자들은 육식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육식습관과 육식문화를 비난하며 채식의 윤리적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도 정교한 논리로 무장한 현대 채식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가혹하고 잔인한 실험이나 사육을 통해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동물의 고통과 그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폭력적 행위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동물해방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싱어의 선언적 주장에 의하면, 동물을 위한 “해방 운동은 우리의 [인간중심의] 도덕적 지평의 확장을 그리고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도덕적 원칙의 확대 혹은 재해석을 요구한다.”³⁾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이 시사하고 있듯

2) Kerry S. Walters and Lisa Portmess (eds.), “introduction”, *Ethical Vegetarianism : Pythagoras to Peter Singer*,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p. 2.

3) Peter Singer, “All Animals Are Equal.”, in Kerry S. Walters and Lisa Portmess (eds.), *Ethical Vegetarianism : Pythagoras to Peter Singer*, p. 165. (Source. *Philosophic Exchange* 1, summer 1974.)

이 전통적으로 인간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평등 원칙의 동물에의 확대 및 적용은 식탁에 오를 맛있는 육류를 위해 공장식 농장에서 고통스럽게 사육되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동물음식을 포기하고 채식을 채택하라는 촉구로까지 이어진다. 이렇듯 육식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비윤리적인 식습관이며, 또 마땅히 추방해야 할 음식 문화인가? 반대로 채식은 정말로 윤리적인가? 육식과 채식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윤리적 차이가 내재되어 있는가?

육식을 거부하며 윤리적 채식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철학적 옹호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리주의 이론이나 의무론적인 도덕적 권리론을 근거로 삼는다.⁴⁾ 특히 싱어는 공리주의를 무기로 삼고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선언적 주장을 제기하면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물윤리를 개척한 선구적 인물이며, 또한 육식의 비윤리성을 고발하면서 이전의 식습관을 포기하고 몸소 채식을 실행하고 있는 실천적 이론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싱어의 논변은 기본적으로 선호공리주의와 동물의 감응력 즉 고통 감수 능력에 근거해서 옹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싱어의 노선을 지지하는 동일 진영 내부에서만 아니라 레간, 롤린스(Bernard E. Rollin), 사폰치스(S. F. Sapontzis) 등 동물권리론자들은 물론 환경주의자들, 여성주의자들의 도전과 비판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⁵⁾ 그런데 이들의 도전과 비판은 싱어의 주장이 함축하거나 초래하게 되는 결과에 주로 초점을 두고서 이루어졌다. 이 글은 이와 달리 동

4) K. P. George, *Animal, Vegetable, or Woman? : A Feminist Critique of Ethical Vegetarian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p. 19. 특히 싱어와 레간(Tom Regan)은 이런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채식주의가 도덕적 의무라는 주장을, 싱어는 공리주의적 근거에서, 레간은 권리론적 근거에서 정당화하고 있다.

5) M. A. Warren, *Moral Status. Obligations to Person and Other Living Thing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71-84.

물의 도덕적 지위를 옹호하며, 그것이 함의하게 되는 육식의 포기 및 윤리적 채식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싱어의 이론적 토대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시도다.

2. 윤리적 채식주의와 육식의 종언

동물해방론자 싱어에 따르면, 캐비아나 트뤼플 뿐만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를 먹는 것은 사치다. 다시 말해서 먹지 않아도, 꼭 먹을 필요도 없는 기호품 같은 것들이다.⁶⁾ 싱어의 이 같은 생각은 세련되고 정교한 이론으로 무장하고서 동물이 도덕적 존재이며, 따라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후의 동물해방운동의 기폭제가 된 저서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 1975)에서 이미 구체화되었다. 이 책의 초판 서문에서 싱어는 자신의 저서가 “인간 아닌 동물(nonhuman animals)에 대한 인간(human)의 폭정”에 대해 고발하고 이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육식의 종식과 우리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기를 먹는 이익집단인 인간의 뿌리 깊은 육식 습관이 동물에게 폭정을 가하는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서 직면하게 될 동물해방운동의 어려움을 실토했고 있다.⁷⁾

싱어에 의하면, 인간이든 인간 아닌 동물이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동물 해방』의 제1장의 제목이기도 한 이 선언적 명제에 부제를 달면서 싱어는 자신이 하려는 작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인간의 평등을 떠받쳐 주

6)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황경식·김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1997, 94, 336쪽.

7)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new revised edition, New York: Avon Books, 1990, 개정판 서문 i-vii쪽. 인용과 번역에 대해서는 피터 싱어, 『동물 해방』, 김성한 옮김, 인간사랑, 1999 참조.

는 윤리적 원칙이 동물에 대한 평등한 고려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⁸⁾ 싱어가 이처럼 동물에게도 평등한 존재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육식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조건은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과 “감응력”(感應力, sentience)이다.⁹⁾ 전자는 평등의 기본 원칙으로서 보편적인 윤리적 관점을 표현하며, 모든 타당한 도덕적 주장들을 도출해내는 준거가 된다. 또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포함해서 윤리적 채식주의를 옹호하게 되는 단 하나의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그리고 후자는 도덕과 비도덕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서 이 원칙의 적용 범위를 결정해 준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대우를 포함해서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의 대원칙은 모든 감응적 존재의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이다.¹⁰⁾ 이 때, 싱어가 강조하듯이, 고려의 평등 또는 평등한 고려(equal consideration)가 대우의 평등, 즉 동등한 또는 동일한 대우(equal or identical treatment)를 의미하지는 않는다.¹¹⁾ 평등한 도덕적 고려가 각자의 처지나 권리 또는 역할과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서의 획일적인 균등한 배분 같은

8)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1.

9) 싱어는 sentience를 “고통을 느낄 수 있거나 즐거움 또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suffer or experience enjoyment or happiness)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Peter Singer, “All Animals Are Equal.”, p. 172. 『실천 윤리학』, 84쪽.; 『동물 해방』에서는 the capacity to suffer and./or experience enjoyment.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8. 이 감응력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감수 능력, 즉 느끼는 능력(the capacity to feel)이다. 이에 대해서는 C. Cohen and T. Regan, *The Animal Rights Debate*, Lanham · Boulder · New York ·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p. 48 참조. 이 글에서 sentience는 “감응력”, sentient는 “감응적” 혹은 문맥에 따라서 “감응적 존재의”로 번역해 사용한다.

10) M. A. Warren, *Moral Status. Obligations to Person and Other Living Things*, p. 65.

11)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2.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도덕적 지위의 척도로서의 감응력의 유무에 의하면, 동물 역시 감응적(sentient) 존재, 즉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들의 이익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싱어는 같은 맥락에서 자신 있게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낄 경우 그 고통을 고려하기를 거부하는 도덕적 정당화란 있을 수 없다.”¹²⁾고 하여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고통(즐거움)의 유무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은 『동물 해방』의 초판(1975년)이 발간된 후 15년이 지난 개정판(1990) 서문에서 “나는 극복할 수 없는 반론을 접해본 적이 없으며, 이 책이 근거를 두고 있는 단순한 윤리적 논증이 결코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¹³⁾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싱어는 선호공리주의적 근거에 기초해서 채식주의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싱어의 입장에서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동물을 이용하는 육식이 비도덕적인 음식 습관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무조건적인 절대적 의미에서의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다만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육식이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동물 살상을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식주의가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는 점에서 싱어는 강경한(hard) 채식주의자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통이 과연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에 대한 도덕적 고려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정당화될 수 있는 고통과 정당화될 수 없는 고통이란 어떤 것인가? 동물과 인간의 고통 혹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며, 또 가능한 일인가?

12)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8.

13)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xi.

3.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과 감응력

싱어에 의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 즉 이익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존재자가 이익을 갖는다고 말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¹⁴⁾ 이에 따르면, 고통을 느끼는 존재들의 이익은 그것이 인간의 이익이든 다른 누구의 이익이든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싱어는 동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주장을 여러 사실적 실험 결과들을 인용하여 반박하고 있다. 싱어는 “고통은 의식의 상태, 즉 ‘정신적 사건’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관찰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고통이란 우리가 느끼는 그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외부적인 징후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을 뿐”¹⁵⁾이듯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분명한 근거로서 행동(behavior), 신경체계의 특징, 고통의 진화적 유용성이라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행동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추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외적인 몸짓이 다른 종, 특히 포유류와 조류 같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에게도 나타나며, 신경체계의 경우에도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낄 상황에서 유사한 신경학적 반응을 보이며, 그리고 유사한 신경체계를 갖는 인간과 동물이 유사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고통은 종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능력으로서 생물학적 유용성을 갖는다는 등의 근거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논거로 삼고 있다.¹⁶⁾

14)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p. 7-8.

15)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10.

16)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p. 10-12, 235-236. 이에 대한 간략한 요약 설명에 대해서는 김성한,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철학연구』, 제22권, 고려대 철학연구소, 1999, 114-115쪽. 또한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96-97쪽.

이와 함께 싱어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논거들 대부분을 물리친다. 예를 들면,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정의감, 이성이나 합리성, 윤리적 반성능력, 지능, 언어 사용 등 복잡한 의사소통 능력, 자의식(self-consciousness), 자율성(autonomy), 인격체, 도구 사용, 추론 능력, 계약 참여나 체결 능력 등을 내세우더라도 인간과 동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차이는 종류(kind)의 차이가 아닌 정도(degree)의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의 정당성을 반박하려는 어떤 논거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¹⁷⁾

그런데 싱어를 쫓아 동물의 고통에 대한 평등한 도덕적 고려를 받아들이더라도 고통이나 쾌락을 느끼는 방식이나 정도에 있어서 생명체들 간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단일한 계산법에 따라 대소와 경중을 따져야 하는가? 대우의 평등이 아니라 고려의 평등을 주장하는 싱어 역시 고통과 쾌락의 계산에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생명의 문제에도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령 고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생명체와 그렇지 못한 생명체 사이에는 각자에게 고통이 갖는 의미와 크기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싱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도 차이의 문제이지 한 생명체를 특별히 다른 기준을 갖고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싱어는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싱어는 인간을 포함하여 생명을 크게 세 개의 범

17)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39-40, 42, 84, 98-100, 105-109쪽, 그리고 특히 제5장 141-168쪽. 그 밖에 인간만이 고통을 느낀다는 데카르트와 행동심리학자들 및 다른 동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K. P. George, *Animal, Vegetable, or Woman? : A Feminist Critique of Ethical Vegetarianism*, p. 22-23, 및 Bernard E. Rollin, *The Unheeded Cry: Animal Consciousness, Animal Pain and 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주로 나누어 접근한다. 통상 우리가 인격체라 부르는 존재인 의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의식을 갖는 존재의 생명, 의식은 있지만 비자의식적인 존재의 생명, 그리고 비의식적(nonconscious) 존재의 생명이 그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에 관한 한 동물들 간에 위계적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원론적인 가능성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리주의자로서 싱어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고통과 쾌락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이익이다. 즉, 그 존재가 누구이든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육식은 그것이 가하는 고통 보다 얻는 즐거움이 더 클 경우 허용가능하다. 그럼에도 싱어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검토해보자.

싱어는 자의식을 갖는 고등동물처럼 어떤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체(person)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의 생명에도 특별한 가치나 보호해야 할 특별한 자격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종족의 생명을 다른 종족의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이론은 배격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다른 종족의 어떤 구성원은 인격체이지만, 반대로 우리 종족의 구성원 중의 어떤 이는 자의식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인격체가 아닐 수 있기에 어떤 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대우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싱어는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우리가 살상하려고 하는 존재가 인격체인지 아닌지 실제로 의심이 간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게 “의심의 이득”(the benefit of the doubt)을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사냥꾼이 덩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슴인지 사냥꾼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쏘지 않는 게 옳다는 논리다. 싱어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해서 많은 동물살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¹⁸⁾ 반면에 물고기처럼 명백히 인격체는 아니지만 의식적(conscious) 동물의

18)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151-152쪽.

경우, 이러한 동물들을 죽이는 것의 옳고 그름은 공리주의적 고려에 달려 있다고 본다. 살생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싱어에게는 죽여가는 과정에서의 고통, 한 동물의 죽음이 그의 동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 많은 요소들이 동물이 인격체이든 아니든 간에 동물에 대한 많은 살생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싱어는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릇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의 답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¹⁹⁾ 인간 아닌 동물 모두에게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동물이라는 표현은 너무 다양한 생명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싱어에 의하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인격체들에 대한 살상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우리가 인간 존재에게 베풀고 있는 살생을 방지하는 완전한 보호조치를 그들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또 확신의 정도가 각각이지만 고래, 돌고래, 원숭이, 개, 고양이, 돼지, 바다표범, 곰, 소, 양을 포함하여 ‘의심의 이득’이라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모든 포유동물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심지어 물고기는 물론 갑각류(바닷가재, 게, 세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밖에 이성과 자의식이 없는 동물의 경우 비록 이들의 살생에 반대하는 주장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인간이 그런 동물사육과 음식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마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체가능성 논변’(the replaceability argument), 즉 한 동물에 대하여 가하는 손해는 다른 동물에게 부여한 이익에 의하여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논리에 따라서 “동물이 즐거운 삶을 살고 있고 고통 없이 죽음을 당하며, 그들의 죽음이 다른 동물에게 고통을 일으키지 않고 한 동물의 죽음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태어나 살 수 없었을 다른 동물의 삶에 의해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자의식이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그릇되지 않을 수도 있다”²⁰⁾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관점과 논리가

19)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165쪽 이하.

동물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공장식 농장마저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싱어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실천적 태도를 갖기를 희망한다.: “실천적인 도덕원칙의 수준에서, 만약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 비자의식적인 동물을 포함하여, 동물을 올바르게 고려하는 태도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음식을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피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가지는 것이 최선일 수 있을 것이다.”²¹⁾

상술한 도덕적 이유에 기초하여 싱어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현재의 갖가지 잔인한 동물실험과 동물사육을 고발하면서 『동물 해방』 제4장에서 현대식 동물사육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을, 설령 즐겁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은 동물을 먹는 것이 잘못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더라도, 사먹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기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²²⁾ 싱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더 적은 고통과 환경에 미치는 손실을 줄이면서 더 많은 음식을 산출하는 방법”²³⁾을 실천하는 도덕적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또한

20)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166쪽.

21)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167-168쪽.

22)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162. 이 점에 있어서 싱어와 유사하게 인간의 도덕의식의 근본적인 변화, 즉 폭력을 통한 다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채식주의를 그 수단으로 인식하여, 식용 동물 산업 제품에 대한 “개인 및 집단 불매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H. Schleifer, “Images of Death and Life: Food Animal Production and the Vegetarian Option”, in Peter Singer (ed.), *In Defense of Animals*, New York: Harper & Row, 1985, pp. 62-73.

23)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159. 이는 제4장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

“채식주의의 옹호”를 아주 값싸게 고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낱 사물처럼 착취하고 있는 “우리의 동물 이용에 반대하는 하나의 도덕적 항의”로 이해할 때 그 같은 태도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한다.²⁴⁾ 말하자면 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법은 논리적으로는 동물이든 인간이든 최대의 선을 위해 죽어야 할 경우가 허용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제적인 필요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같은 육식 편애는 그저 일종의 기호(taste)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²⁵⁾

4. 동물의 고통과 육식의 비윤리성

싱어는 도덕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 두 방향에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측면은 상술한 논의를 통해 제시되었듯이 의식적 피조물들에 고통을 초래하는 착취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이루어진다. 반면 사실적 측면은 주로 육식을 위한 동물사육이 초래하는 피해와 부작용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서 육식의 불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굳이 도덕적 이유에서가 아닌 사실적 이유에서 육식을 거부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싱어의 주장의 핵심은 육식의 비도덕성에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싱어는 도덕적 고려 여부를 결정할 경계의 확실한 기초를 의식적 생명과 비의식적 존재(생명)의 구분,

(Becoming a Vegetarian)의 부제이다.

24) Peter Singer, "A Vegetarian Philosophy", in *Writings on an Ethical Life*, New York: HarperCollins, 2000, p. 70. (Source. Peter Singer, *Consuming Passions: Food in the Age of Anxiety*, Manchester, Englan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8).

25) K. P. George, *Animal, Vegetable, or Woman? : A Feminist Critique of Ethical Vegetarianism*, p. 29.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의 유무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채식의 재료인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가? 싱어에 의하면, 식물에게서는 고통을 시사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식물은 인간 및 동물과 달리 중앙집중적으로 조직된 신경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²⁶⁾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도덕적 고려의 경계선을 고통이 나 즐거움의 유무, 즉 감응력이나 의식의 유무에다 그어야 하는가? 싱어가 감응력의 핵심 요소로 채택하는 이익이나 이해관계 이외에도 어떤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유 및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속성들은 아주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연적 대상이나 그것이 갖는 어떤 속성들, 생물학적 복잡성이나 존재론적 복잡성, 생태계와 생물권의 전형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다양성, 부분들의 기능적인 통합성, 조화, 자동조절체계와 같은 속성들은 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이에 대해서 싱어는 당연히 그것들은 감응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식물은 정말로 고통을 느낄 수 없는가? 이에 대해서 싱어는 사실적 이유와 논리적 이유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한다. 먼저 사실적 토대와 관련해서 싱어는 식물의 고통 감수 능력 여부에 대한 현재까지의 과학적 실험이 모종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이유에서 그 가능성을 물리치고 있으며, 특히 논리적 이유와 관련해서는 설사 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식물이 동물에 비해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유에서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바람직하며, 그리고 식물이 동물만큼이나 자극에 민감하다(sensitive) 하더라도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식물을 음식으로 이용하면서 채식주의자들보다 최소한 열 배는 더 식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들면서 채식을 옹호하고 있다.²⁷⁾

26)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97쪽.

27)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p. 235-236.

이처럼 싱어를 비롯해 폭스,²⁸⁾ 프레이²⁹⁾처럼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동물을 도덕적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는 기준과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고통이다. 이와 달리 레간처럼 권리 개념에 기초해서 동물에 삶의 주체(subject of life)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싱어보다 더욱 강한 채식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견해도 있다.³⁰⁾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육식 금지와 채식주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육식 금지의 대상인 동물은 도덕적 의미를 갖지만 채식주의의 대상인 식물은 생물학적 의미만을 갖기 때문이다.³¹⁾ 필자가 보기에 이 같은 간극과 불일치는 독립적인 기준을 갖고서 식물에 대한 공정한 고려와 평가의 자세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떠나서 왜 싱어는 다른 것이 아닌 고통 혹은 감응력을 채식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은 과연 정당한 선택인가? 이와 관련해서 고통 자체에 대한 싱어의 이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싱어가 공리주의자라서 고통과 쾌락을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의 핵심요소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는 해석은 일단 배제해야 한다. 비록 싱어가 윤리적 주장이 보편적 관점을 지녀야 하며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에 가장 합당한 이론이 공리주의적 견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럴 경우 공리주의에 가해지는 비판들을 고스란히 떠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28) Michael A. Fox, "Animal Experimentation: A Philosopher's changing views", *Between the Species*, 3 (1987).

29) R. G. Frey, "Moral Standing, the Value of Lives, and Speciesism", *Between the Species*, 4, no. 3 (1988).

30) T.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31) S. F. Sapontzis, *Morals, Reason, and Animal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pp. 199-201.

를 들어 대우의 평등이 아닌 고려의 평등을 주장하더라도 앞서 생명의 가치 비교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경험과 인간의 경험 자체를 과연 동등한 비중을 두고서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여전히 정당하게 물을 수 있다.³²⁾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유력한 가능성으로서 고통이 인간과 동물 각각에게 어떤 비중을 갖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고통에 대한 일반적 정당화다. 앞선 논의에서 싱어는 인간의 고통을 기준으로 삼고 동물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싱어가 들고 있는 근거들, 즉 행동(behavior), 신경체계의 특징, 고통의 진화적 유용성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나머지 두 가지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고통의 생물학적 측면을 문제 삼는다면, 첫 번째는 후자와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윤리적 측면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싱어는 의식적인 존재를 넘어서까지 윤리를 확장시키는 것을 어려운 과제라고 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려는 진지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싱어가 들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신경체계의 유사성,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고통의 진화적 유용성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판단의 문제다. 그것은 한 종이 자신의 —이때의 그 혹은 그녀는 어떤 선호를 선행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작동 결과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필자가 보기에 식물 역시 진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에게 고통이 갖는 기능 및 역할과 유사한 어떤 속성 X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 경우에 동물의 고통 혹은 이에 해당하는 식물의 그 무엇 X는 한 생명체의 본질을 규정하거나 특징짓는 근본 요소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만일 그것(고통과 X)이 가치판단이 배제되어야 하는

32) M. Midgley, *Animals and Why They Matter*,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3, p. 90.; C. Cohen and T. Regan, *The Animal Rights Debate*, p. 63.

하나의 사실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하면서도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어떤 본래적(intrinsic) 내지는 내재적(inherent)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오직 그 때에만 고통과 X는 가치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싱어는 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며, 고통과 X 이 양자를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어는 고통을 본래적 가치를 갖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상정한 다음,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 존재라는 주장이 자의적인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윤리적 고려의 범위를 감응력을 기준으로 동물에까지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 논리를 택하고 있다.³³⁾ 오히려 본래적 가치를 갖는 생명체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생명 외경’(reverence for life)을 호소하는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³⁴⁾나 생명체는 모두 목적론적 생명 중심체(teleological center of life)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자체적 선을 갖는다고 보는 폴 테일러(Paul Taylor)³⁵⁾와 같은 이들의 윤리적 견해를 열망, 고양, 기쁨, 공포와 같은 말을 통해 생명체가 마치 선을 ‘추구한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즉 “그들이 언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³⁶⁾ 하지만 이들의 언어가 은유적이라 할지라도 사실적 차원의 고통을 가치적 차원의 의미로 해석하는 순간, 싱어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작 그 자신은 실제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폰치스(Steve F. Sapontzis)가 원칙적인 수준에서 식물도 이해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입증되면, 동물해방론자들은 일관성 있게 그 같은 존재의 해방 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 지적인 충분히 음미되어야 한다.³⁷⁾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문

33)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322-324쪽 참조.

34) A. Schweitzer, *The Philosophy of Civilization*, part 2(Civilization and Ethics), trans. John Nash, London: A. & C. Black, 1923, pp. 254-258, 264-265.

35) P. Taylor, *Respect of Nature*, Princeton, 1986.

36)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327쪽.

제해결의 중심에는 발생적 차원이 아닌 가치론적 수준에서 고통이나 쾌락을 한 생명체가 어떻게 혹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보다 독립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든 싱어든 고통을 도덕적 고려의 토대로 삼으려면 고통 자체를 보다 일반적인 가치론의 차원에서 정당화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싱어 역시 ‘은유’ 이상의 자의적인 선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범위를 한정해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고통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고통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인간은 분명 고통을 싫어한다. 동물의 고통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싱어의 말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자의식 수준의 지각 능력을 갖는 고등동물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인간과 (일부) 동물 모두의 고통 자체에서 가치는 발견된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들 모두가 쾌락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동물의 고통이 내 아이의 고통보다 훨씬 크더라도 내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동물을 죽일 수도 있지 않은가? 또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동물에게는 즐거움을 내 아이에게는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는 즐거움은 덜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허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고통을 다른 가치들과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가치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의 고통에서 동물의 고통으로, 그리고 내 아이의 죽음에서 동물의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37) S. F. Sapontzis, *Morals, Reason, and Animals*, p. 74. 사폰치스는 싱어와 레간의 동물윤리의 취약점을 보완,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 저서의 마지막 14장(Plants and Things)에서 그 역시 동물해방론자들처럼 식물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식물의 이해관심과 관련한 도덕적 고려가능성을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은 채 개체론적 동물윤리를 고수하면서 동물해방론과 환경윤리의 접목을 모색하고 있다.

동물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 혹은 인간의 고통에 이를 수 없으며, 오로지 나의 신체 혹은 내 아이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고통 사건’(pain as a event)을 통해서만 동물의 ‘고통 사건’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경우에 인간의 고통 사건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인지적 및 가치적 이해가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 같은 점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통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것에 존재론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경생리학적 상태나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와는 별도로 선행적으로 ‘인간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레오폴드(Aldo Leopold)의 저술³⁸⁾에서 유래하는 환경윤리로서 동물에 한정된 윤리를 뛰어넘어 생태학적 전체론(holism)을 지지하는 캘리콧이 고통 자체를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보면서 고통의 윤리에 기초해 있는 동물해방운동을 “세계를 거부하고”(world-denying) “생명을 혐오하는”(life-loathing) 철학이라고 반대하는 것도 좋은 한 예가 될 것이다.³⁹⁾ 인간은 고통 이상의 존재이며, 특히 인간의 윤리는 그 이상의 토대 위에서 정초되어야 한다.

싱어의 고통의 윤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경우는 사소한 즐거움을 위해 과도한 고통을 가하거나 감수하는 것마저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우리의 상식적 판단이다.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들이 허용할 수 없는 고통의 한계치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인간의 필요와 심대한 동물의 복지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우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싱어가 하듯이 공리주의적 정당화는 별 실효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고통에 대한 발생적 차원 및 의미론적 차원을 갖는 존재의 범위를 설사 동물

38) A. Leopold, “The Land Ethic”, in *A Sand County Almana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p. 201-226.

39) J. Baird Callicott, “Animal Liberation: A Triangular Affair”, in *Environmental Ethics* 2 (1980), pp. 333 및 321-334.

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서 적어도 동물 역시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며,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지각하는 의식적 경험을 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공리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육식의 비윤리성이 결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살펴보자.

내가 하는 육식은 반드시 동물의 고통을 야기시키는가? 이때의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그리고 그 고통은 동물 그 자신과 분리되지 않는 고통과 어떻게 다른가? 싱어나 사폰치스 등 동물해방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사람들의 지적처럼 동물은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고도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집단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동물착취와 육식이 전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착취란 이미 부당한 대우를 전제한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란 마땅한 방식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진 육식은 동물해방과도 양립 가능하다. 하지만 동물해방론자들의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현실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채식주의는 불가피한 귀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폰치스에 따르면, 동물착취의 종식이 가져오는 한 가지 실천적 귀결이 채식주의이지만, 그것이 곧 동물 상품의 전면적 금식을 의미하는 완전 채식주의(veganism) 혹은 우유나 계란은 용인하는 락토-오보 채식주의(lacto-ovo vegetarianism)까지만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해방의 대상인 동물은 곧 도덕적 지위와 의미를 갖는 존재에 국한되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이나 비착취적 방식으로 얻어진 동물, 이를테면 즐거운 삶을 살다가 이루어지는 고통 없는 도살, 가령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도살로 만들어 낸 육식 제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와 같은 기계적인 육류 생산, 그것도 대량 생산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살된 동물의 삶의 중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상실된 여생 및 그의 동물가족에게 초래되는 고통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또 다른 경우로 계란 생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닭은 하루에 하나의

알을 낳는데, 이는 추가적인 고통 없이 생산되는 방식이며, 수확 당시의 계란 내용물의 감응력 문제를 제쳐두고 생각할 경우, 충분히 가능한 비착취적인 방식으로 얻어진 동물음식이다. 또 나이 들어 자연사 한 후의 동물 이용도, 충분한 공급이나 안정성 혹은 사람의 입맛 등과 같은 고려 사항들을 제쳐놓을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착취의 종식이라는 실천적 관심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많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대량 생산 방식이나 육식을 위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 동물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동일한 논리를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갖게 되는 도덕적 혐오감 등을 감안하면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육식을 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는 없다.⁴⁰⁾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그렇다고 그것이 곧 육식의 비윤리성을 옹호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기껏해야 단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침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말고도 채식의 윤리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거로서 싱어처럼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채택한다고 해도 이로부터 역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 좋은 예로 프레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프레이 역시 싱어와 동일하게 동물의 대우와 채식주의와 같은 실천적 문제들에 공리주의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요한 사안들에 있어서 싱어와 결론을 달리 한다. 특히 싱어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도덕적 근거에서 채식주의를 옹호하지만, 프레이는 동일한 근거에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⁴¹⁾ 이렇게 동일한 도덕철학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불일치가 결과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미래중심적인 결과론적 입장을 취하는 윤리설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레간이 지적하듯이, 공리주의자들에게

40) S. F. Sapontzis, *Morals, Reason, and Animals*, pp. 197-198, 201-207 참조.

41) R. G. Frey, *Rights, Killing, and Suffering: Moral Vegetarianism and Applied Ethics*, Oxford: Clarendon, 1983.; T. Regan, *Defending Animal Rights*,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1, p. 14.

결과에 대한 의견 대립은 한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대립으로 이어진다.⁴²⁾ 가령, 채식주의의 경우에, 싱어는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육식을 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육식을 할 때의 결과보다 더 낮다고 결론 내리고, 반면 프레이는 채식으로 인한 이득이 우리를 채식주의자가 되게 해야 할 만큼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싱어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불일치의 원인은 미래의 결과에 대한 사실적 불일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고통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 채식주의를 공리주의적 근거에서 옹호하려는 시도 역시 만만치 않은 난점에 직면할 수 있다. 레간 이외에도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클라크에 의하면,⁴³⁾ 채식주의 문제에 공리주의를 적용하면서 싱어와 프레이가 처해 있는 분명해 보이는 해결되지 않는 난점은 공리주의 이론 일반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리주의와 동물의 고통에 기초해서 채식의 윤리적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싱어의 논변은 고통이 인간과 동물 각각에 대해서 차지하는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약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과 논변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사 동물의 고통에 대한 싱어의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총체적인 실천적 지침으로서의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개별적 사례들 각각의 경우의 행동지침으로서의 무력한 것이 되기 쉽다. 이를테면 고려되어야 할 개체들 전체의 고통과 쾌락의 산정에 있어서 그 범위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와 같이 육식이 일반적인 식습관인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행위 선택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고려가 현재와 미래, 즉 시간의 추이에 따

42) T. Regan, *Defending Animal Rights*, p. 15.

43) Stephen S. L. Clark, *The Moral Status of Animals*, Oxford: Clarendon, 1977.;

T. Regan, *Defending Animal Rights*, p. 15.

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식보다는 육식을 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되어야 할 수도 있다.

5. 맺음말

싱어의 채식주의 옹호 논변은 동물의 고통(감응력)을 내세워 그들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육식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채식의 옹호로 진행된다. 하지만 싱어의 채식주의론은 그 발단에서 있어서 육식의 비도덕성을 주장하면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육식습관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시선은 근본적으로 고통 중심의 협소한 인간관에 기대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크게 벗어나있지 않아 보인다. 고통의 발생적 지위를 고려할 때, 채식의 재료로서의 식물의 존재론적 위상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싱어의 채식주의 옹호 논변은 그 자신이 적용한 바 있는 ‘의식의 이득’에 저촉될 수 있다. 인간인 우리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정 부분 그것도 한계가 있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식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선 역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경우가 생명 자체에 대한 가치의식이다. 특히 모든 도덕적 판단에는 가치의식이 수반된다면, 동물에 못지않게 식물의 가치에 대한 의식 또한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육식과 채식의 도덕적 차이를 온전히 규명하고, 또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보다 설득력 있는 논변은 육식의 비도덕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식물의 존재론과 가치론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논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통을 포함해서 어떤 존재가 갖게 되는 도덕적 가치와 여타의 가치를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 짓고 또 그 차이를 어떻게 준별할 것인지에 대한

독립적인 탐구가 있어야 한다. 가치론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육식과 채식의 도덕적 차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일은 대부분 실패할 지도 모르며, 또 윤리적 채식주의의 채택 혹은 거부를 주장하는 어떤 시도도 그것이 전통적 의미의 일반적인 도덕규칙에는 호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채식주의를 둘러싼 의사결정은 육식 혹은 채식을 성인 남성과 여성, 청소년, 어린이, 노년층 및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 여건 등 인간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차이들을 고려하는 “맥락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⁴⁴⁾

(중앙대학교)

44) 이러한 관점에서 채식주의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K. P. George, *Animal, Vegetable, or Woman? : A Feminist Critique of Ethical Vegetarianism*, p. 3, 10, 특히 ch. 7. 이와 관련한 고찰은 이 논문에 후속하는 필자의 글의 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한,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철학연구』, 제22권, 고려대 철학연구소, 1999.
-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신현승 옮김, 시공사, 2002.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황경식 · 김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1997.
- _____, 『동물 해방』, 김성한 옮김, 인간사랑, 1999.
- 피터 싱어 엮음, 『응용윤리』, 김성한 · 김성호 · 소병철 · 이병철 옮김, 철학과현실사, 2005.
- 한면희, 『환경윤리 : 자연의 가치와 인간의 의무』, 철학과현실사, 1997.
- Callicott, J. Baird, “Animal Liberation: A Triangular Affair”, in *Environmental Ethics* 2 (1980).
- _____, “Reply to Sapontzis”, in *Ethics & Animals* 5 (1984).
- Clark, Stephen S. L., *The Moral Status of Animals*, Oxford: Clarendon, 1977.
- Cohen, C. and Regan, T., *The Animal Rights Debate*, Lanham · Boulder · New York ·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 Curtin, D., “Toward an Ecological Ethic of Care”, *Hypatia* 6, spring 1991.
- Devine, Philip, “The Moral Basis of Vegetarianism”, *Philosophy*, vol. 53 (1978).
- Elliot, R., *Environmental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Fox, Michael A., “Animal Experimentation: A Philosopher's changing views”, *Between the Species*, 3 (1987).
- Frey, R. G., *Interests and Rights: The Case against Animals*, Oxford: Clarendon, 1980.
- _____, *Rights, Killing, and Suffering: Moral Vegetarianism and Applied Ethics*, Oxford: Clarendon, 1983.
- _____, “Moral Standing, the Value of Lives, and Speciesism”, *Between*

- the Species*, 4, no. 3 (1988).
- George, K. P., *Animal, Vegetable, or Woman? : A Feminist Critique of Ethical Vegetarian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 Jamieson, D. (ed.), *Singer and his critics*, Oxford: Blackwell, 1999.
- Kant, I., *Die Metaphysik der Sitten*, 바이세델판 VIII권.
- Leopold, A. *A Sand County Almana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 Midgley, M., *Animals and Why They Matter*,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3.
- Regan, T., “The Moral Basis of Vegetarianism”, in *Th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October 1975.
- _____, *The Case for Animal Righ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_____, *Defending Animal Rights*,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1.
- _____, “The Nature and Possibility of an Environmental Ethic”, in *Environmental Ethics* 3 (1981).
- _____, “Feinberg on What Sorts of Beings Can Have Rights”, in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14 (1976).
- _____, “Utilitarianism, Vegetarianism, and Animal Right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9 (1980).
- Rollin, Bernard E., *Animal Rights and Human Morality*, New York: Prometheus, 1992.
- _____, *The Unheeded Cry: Animal Consciousness, Animal Pain and 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Routley, Richard and Routley, Val, “Against the Inevitability of Human Chauvinism”, in K. E. Goodpaster and K. M. Sayre (eds.), *Ethics and Problems of the 21st Century*, Notre Dame and London: Notre Dame University Press, 1979.
- Salt, Henry S., *The Humanities of Diet*, Manchester: The Vegetarian

- Society, 1914.
- Sapontzis, S. F., *Morals, Reason, and Animal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 Schleifer, H., "Images of Death and Life: Food Animal Production and the Vegetarian Option", in Peter Singer (ed.), *In Defense of Animals*, New York: Harper & Row, 1985.
- Schweitzer, A., *The Philosophy of Civilization*, trans. John Nash, London: A. & C. Black, 1923.
-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new revised edition, New York: Avon Books, 1990
- _____, *Practical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 1993.
- _____, *Consuming Passions: Food in the Age of Anxiety*, Manchester, Englan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Writings on an Ethical Life*, New York: HarperCollins, 2000.
- _____, "All Animals Are Equal.", in *Philosophic Exchange* 1, summer 1974.
- _____(ed.), *In Defense of Animals*, New York: Harper & Row, 1985.
- Taylor, P., *Respect of Nature*, Princeton, 1986.
- Walters, Kerry S. and Portmess, Lisa (eds.), *Ethical Vegetarianism : Pythagoras to Peter Singer*,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 Warren, M. A., *Moral Status. Obligations to Person and Other Living Thing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eter Singer and the Ethical Vegetarianism

Joo-Man Maeng

Most contemporary Western writers who offer a systematic philosophical defense of ethical vegetarianism have used either utilitarian theory or a deontological moral rights theory. Peter Singer is typical of the former, and Tom Regan the latter. Singer is a moral theorist whose has done much to reinvigorate the animal liberation movement. Preference Utilitarianist Singer's ethical vegetarianism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and sentience as the capacity to feel pleasure or pain. He says the preference for a non-vegetarian diet is largely a matter of taste. Liking the taste of meat does not constitute an interest strong enough to override the interests of animals in avoiding pain and suffering.

But Singer's utilitarianism is not only future-oriented, and only the consequences of actions count rather than intentions, so it cannot exclude a meat-eating. Also Singer's sentience-based theory of moral status does not consider the meanings of pain in organism, especially human beings in its fullness. The whole considerations for human pain, including to animals, must deal with ontology and semantics of pain, including value theory of plant life.

Key Words: the ethical vegetarianism,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 utilitarianism, sentience, pain

맹주만 e-mail : maengjm@cau.ac.kr